

다니엘서 - 제175번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병행

Jeff Pippenger

2024-04-05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과 동일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한 "mareh" 환상의 여성형 표현인 "marah" 환상이었다. "mareh"는 2,300년의 환상을 가리키며, 그 기본 의미는 "나타남"이다. 다니엘과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모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본 환상이었다.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가에 있을 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몸도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같은 모양이며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서 10:4-6.

"appearance"를 뜻하는 "mareh"라는 단어는 그 본문에서 "the appearance of lightning"으로 번역된다. 그 단어는 10장에 네 번 사용되며, 두 번은 "vision", 두 번은 "appearance"로 번역된다. 이 단어는 여성형으로도 세 번 더 사용된다. "marah"라는 단어는 "appearance"라는 환상의 여성형 표현이다. 그것은 "a looking glass"로 정의되며, 그것이 보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causative" 부사이다.

사동적 부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거나 효과를 낳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이다. 언어와 문법에서는 주로 누군가나 무언가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거나 어떤 상태를 겪도록 만든다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나 구문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She made him laugh"라는 문장에서 동사 "made"는 주어(그녀)가 목적어(그)에게 웃는 행위를 하도록 시켰음을 나타내므로 사역동사이다.

나는 내 차 수리를 맡겼다. (이 문장에서 주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차를 수리하게 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시험 공부를 시켰다. (여기서 주어 "She"는 학생들이 시험 공부라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머리를 잘랐다. (이 경우, 주어 'He'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자르도록 했다.)

그 회사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했다. (이 문장에서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건물 리모델링을 하게 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돕게 할 것이다." (여기서 주어 "We"는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돕게 할 계획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각 예에서 사역 동사(had, made, got, get)는 주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본동사(repaired, study, cut, renovated, help)가 나타내는 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습"의 "mareh" 환상은, 그것이 여성형 "marah"로 표현되고 "거울"로 정의될 때,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환상이 그 환상을 바라보는 이들 안에 재현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번개처럼 보았을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두려워 달아났지만,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그의 내면에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켰다.

나 다니엘만이 그 환상을 보았으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숨으려고 달아났다. 그래서 나는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는 내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부패로 바뀌었고, 내가 기력을 조금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니엘 10:7, 8.

진리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째 글자와 열셋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단어 "진리"로 표상된다.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언제나 동일한데, 알파와 오메가로서 항상 시작과 함께 끝을 나타내신다. 가운데 글자 곧 열셋째 글자는 반역을 나타낸다. 다니엘은 "나 다니엘만 그 이상을 보았고"라고 말하지만,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곧 반역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홀로" "그 큰 이상"을 "보았"다. 시작에서와 끝에서 다니엘만 그 이상을 보았고, 두 번째 언급은 도망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반역을 드러내게 하였다.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형상을 바라보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우리는 "거울"의 이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 있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 계속 나아가면, 그의 나아가심이 아침과 같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라고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완전을 참되게 나타낼 수 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자아로부터 비워질 때, 그분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 개의 금관을 통해 자신들의 금 기름을 쏟아내는 두 감람나무 가지는, 정결하게 된 그릇들에게 분명히 빛과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공급하여,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흘러가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헐적인 봉사도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 배우고 그분의 온유와 마음의 겸손을 소중히 품을 때에만 이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 숨기자. 그분을 신뢰하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성품에서 성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시대의 징조, 1900년 4월 25일.

다니엘서 10장과 9장에서 가브리엘은 예언의 외적 환상과 내적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제공하며, 10장 1절에서 다니엘이 처음으로 한 진술은 그가 "일"과 "이상"으로 표상된 그 두 환상을 모두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애통 가운데 있었던 이십일 일이 끝나는 시점에 그 깨달음을 받았다. 그 이십일 일은 천사장 미가엘의 도래로 마무리되었다. 이백이십이라는 수와, 이백이십의 십분의 일 곧 십일조인 이십이라는 수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하며,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그 이십이째 날이었다.

나는 맛있는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전혀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니, 세 이레가 다 찰 때까지였다.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을 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다. 다니엘서 10:3-5.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흠어졌음을 깨닫고, 그 흠어진 상태를 슬퍼하며 빛을 구하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다. 그들의 흠어진 상태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르고 죽은 뼈들의 골짜기로 묘사되어 있다. 그 뼈들은 죽어 있고 흠어져 있으나, 그것들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밝혀진다.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 족속은 십사만 사천이다. 그들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와 모세의 책들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과 같이 흠어져 있다. 에스겔서에서 그 죽은 상태는 그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끊어졌다 하느니라. 에스겔 37:11.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뼈들은, 자신들이 "우리는 각기 끊어졌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흠어진 상태를 인정했다.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족속은 열 처녀의 비유를 글자 그대로 성취하며, 밀러파의 역사에서는 그들이 각기 끊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그 성취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자신들이 지체하는 때에 있음을, 그리고 그 지체하는 때가 그 비유의 특정한 기간임을 깨달았을 때 확인되었다. 에스겔에서 자신의 흠어진 상태를 인식하는 자들은, 첫 번째 실망 이후 자신들이 지체하는 때에 있음을 깨달은 자들이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과 열 처녀의 비유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모두 다니엘이 스물한 날 동안 애통한 것으로 상징된다. 스물한 날이 지난 뒤, 스물둘째 날에 미가엘이 내려왔고, 다니엘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죽은 뼈들도 거울 같은 환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를 거쳐야 한다.

다니엘, 에스겔의 죽은 뼈들, 그리고 밀러주의 역사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모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두 증인과 상응한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상징적인 사흘 반의 끝에 부활할 것이었다. 모세는 유다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미가엘에 의해 부활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그를 대적하여 훼방하는 고발을 감히 제기하지 않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유다서 1:9.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은 스물한 날 동안 애도한 뒤 미가엘이 강림할 때 거울 같은 환상을 보게 된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은 미가엘의 음성이다.

주께서 친히 큰 외침과 천사장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다니엘서 10장은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에서 셋째 천사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의 전환을 밝힌다. 이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 열 처녀의 비유의 슬기로운 처녀들, 그리고 그 비유를 성취한 밀러주의자들과 상응한다. 가브리엘은 9장에서 시작했던 해석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큰 거울 같은 환상의 해석을 제공했다. 그 해석은 가브리엘이 11장에서 발견되는 예언적 역사를 식별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실제로 12장 처음 세 절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12장 4절에서 다니엘은 자기 책을 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다니엘서 10장에서, '구절 위에 구절'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 백성을 대표하며, 그들은 다니엘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의 비밀스러운 짐승들의 형상으로 대표되는 외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간절히(죽음의 위협 아래에서) 구하는 자들로 나타난다. 그는 또한 이천삼백 일로 대표되는 내적인 예언의 메시지의 환상을 이해하고자 구하고 있다. 10장에서 상징적인 21일간의 애통이 지난 뒤, 그는 마침내 두 계시를 이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깨달음은 대천사가 강림하여 그를 세 번 만질 때 이루어진다.

그가 미가엘과 함께한 체험, 곧 오직 그가 보는 미가엘의 환상은 예언의 내외적 환상 둘 다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받아들이도록 그를 준비시킨다. 그 체험은 에스겔 37장, 요한계시록 11장, 이사야 6장과 결합될 때 한 줄 한 줄 매우 상세하게 제시된다. 가브리엘이 두 환상을 결합시키는 11장의 구절은 10절인데, 거기서 북방의 왕이 요새까지 올라가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그 요새는 이사야 7장에서 정의된 대로, 그 구절에서는 이집트라는 나라 또는 그 수도, 혹은 이집트의 왕을 가리킨다.

이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또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은 깨어져 다시는 한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다니엘 11장 10절에서 북방 왕은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러 올라오며, 그 절은 그것을 이집트(남방 왕)의 "요새"로 규정한다. 10절은 1989년을 표상하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그때 소련은 교황권과 그 대리 군대인 미국에 의해 휩쓸려 사라졌다. 그것은 세 차례의 대리전 가운데 첫 번째였으며, 그 세 번째 대리전(파니움)에서 마침내 제3차 세계대전이 된다. 두 번째 대리전은 11절과 12절로 표상되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러시아는 남방 왕을 대표하고 있으며, 마치 1989년 패배 당시 소련이 남방 왕을 대표하였던 것과 같다.

나는 과거에 이 세 대리전과 세계대전을 구별하기 위하여 "냉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참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그것은 엄밀히 말해 냉전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황권과 그 동맹국들,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대리전이다. 그러나 장차 제3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는 사실상 모든 나라가 표적이 될 것이다.

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거의 우상숭배에 빠진 수천의 도시가 임박한 멸망에 처해 있음을 깨닫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

최악은 거의 그 한계에 이르렀다. 혼란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머지않아 큰 공포가 인류에게 닥칠 것이다. 종말이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곧 세상에 엄청난 놀라움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9월 10일.

11절과 12절에서 남방의 왕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휘하고 있으며 교황권의 이전 대리군인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나치 정권으로 표상된 교황권의 대리군을 패배시킬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산주의 러시아에 맞선 북방의 왕, 곧 교황권의 대리군은 독일의 나치 정권이었으며, 그 대리군은 패배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다시 패배할 것이다.

세 번째 대리전은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타나며, 고대 역사에서는 파니움 전투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세 번째 대리전은 교황권의 대리 군대인 미국에 의해 수행될 것이며, 북방 왕은 첫 번째 대리전(냉전)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전투에서 무신론을 대적하여 승리할 것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대리전에서 북방 왕 곧 교황권은 남방 왕(소련)을 패배시키고, 이어서 국제연합을 패배시킨다. 이 두 전투에서 그 대리 군대는 미국이었으며, 다시금 미국이 될 것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거둔 후, 트럼프는 여덟째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될 것인데, 곧 1989년에 첫 번째 대리전(냉전)이 성취된 이래 미국에서 통치해 온 일곱 대통령에게서 난 자이다. 그때는 셋째 천사의 개혁 운동에 있어서 끝의 때였다. 트럼프는 땅의 짐승 위에 있는 공화당의 뿔을 대표하며, 그는 2020년에 "각성한" 무신론의 짐승의 손에 치명상을 입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의 성취였다.

Future for America는 동일한 역사 속에서 참된 개신교의 뿔을 대표하며, 2020년에는 'woke' 무신론의 짐승에게 치명상을 입었다. 2001년으로부터 22년이 지난 2023년에 미가엘이 내려와,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 때 기치로 높이 들려질 막강한 군대를 부활시키는, 에스겔·요한·다니엘·이사야가 나타낸 과정을 시작하였다.

1856년에 필라델피아적 밀러 운동은 라오디게아적 밀러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바로 그때 거기서 일곱 때에 관한 증가된 지식을 거절하였으며, 이어 1863년에 그들의 반역을 완전히 확정지었다. 밀러파는 여섯째 교회인 필라델피아로 표상된 상태에서 일곱째 교회의 경험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전환점은 2023년의 역사와 일치한다. 그때 Future for America의 라오디게아 운동은 일곱째 교회의 경험에서 다시 여섯째 교회인 필라델피아의 경험으로 전환된다. 이 예언적 적용에서 참된 개신교의 뿔은, 공화당의 뿔이 그러하듯, 일곱 중에서 나온 여덟째가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번째 대리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열쇠는 10절과 7절의 "요새"이다. 1798년에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것을 표상하는 7절에서, 남방 왕은 북방 왕의 "요새"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것은 나폴레옹의 장군이 바티칸으로 들어가 교황을 사로잡음으로써 성취되었다. 남방 왕은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10절에서 교황권과 그 대리군인 미국을 대표하는 북방 왕은 소련의 구조를 휩쓸어 제거하였으나, "요새"는 그대로 서 있게 두었다. 그 "요새"는 머리요, 수도였으니 곧 러시아였다.

그러나 '머리' 혹은 '요새'는 이사야 7장 7절과 8절을 적용하여, 두세 증인의 증언에 근거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 이사야 7장 8절과 9절은 1856년에 발표된 히람 에드슨의 '일곱 때' 연재 기사에서 주된 참조점이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세한 '요새'임을 입증하는 두 구절은,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을 상대로 한 두 '일곱 때' 모두의 시작점을 설정하는 바로 그 두 구절이기도 하다. 11장 10절은 외적 환상을 지목하는데, 화이트 자매는 그것이 왕국들의 흥망성쇠에 근거한다고 가르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보여주는 나라들의 흥망성쇠에서, 우리는 단지 외형적이고 세속적인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워야 한다. 그 후로 우리 세계가 다시는 보지 못한 권세와 장엄함을 지녔던 바벨론—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견고하고 영속적으로 보였던 그 권세와 장엄함도—얼마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렸다. 야고보서 1:10. 메대-페르시아 왕국과 그리스와 로마의 왕국들도 그와 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은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멸한다. 오직 그의 목적과 결부되어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이 영속할 수 있다. 우리 세계가 아는 확고한 것은 그의 원칙들뿐이다." 선지자와 왕들, 548.

세 차례의 대리전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이 진리의 열쇠는 다니엘 11장 10절의 "요새"이다. 그러나 10절은 또한 내적 이상을 다루는데, 이는 두 "일곱 때"의 출발점이 이사야 7장 8절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이천오백이십 년의 두 기간은 또한 에스겔의 두 막대기이니, 이것들이 함께 연합될 때, 신성과 인성의 결합인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나타낸다.

사역적 의미의 "마라"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경험은 미가엘께서 내려오셔서 마지막 시대의 당신의 백성을 부활시키시는 예언의 노선을 나타낸다. 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마지막 시대의 당신의 백성의 인성과 결합하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단계들을 나타낸다. 그것은 신적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며, 또한 그것은 보좌실, 곧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곳은 화이트 자매가 영혼의 "성채"(fortress)로 밝히는 "요새"이다.

보좌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세 백성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이어 하늘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늘의 처소는 요새, 곧 성전의 머리다. 몸된 성전은 낮은 본성, 곧 육체 또는 몸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높은 본성, 곧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외적 환상의 요새를 지목하는 열쇠는 내적 환상의 요새도 지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공화주의와 개신교의 별들이 짐승의 형상(공화주의) 또는 하나님의 형상(참된 개신교)으로 전환되는 역사를 밝힌다. 그런 다음 두 별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된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참된 별은 곧 에스겔의 강대한 군대이며, 짐승의 형상에 맞서는 전쟁에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높이 들리는 이사야의 기치인 빌라델비아의 별이다. 다니엘서 11장 10절은 막대기들의 연합이 시작되는 지점을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확인해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에 시작되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에 이르러서였다. 2001년 이후 스물두 해가 지난 2023년에, 미가엘은 2020년에 열 처녀의 비유의 성취 가운데 첫 번째 실망을 겪었던 자들을 부활시키는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먼저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의 "음성"을 일으켰다. 2023년 7월에 그 음성이 외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음성은 1989년에 셋째 천사의 개혁 운동의 시작에서 일으켜졌던 바로 그 동일한 음성이었다.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끝을 시작으로 예증하시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은 요한계시록 1장을 제시함으로써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स्वधोन**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표상되며, 그 계시는 은혜의 시간이 마감되기 직전에 열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10장에서 그 계시를, 곧 "인과적" 이상 가운데서 경험하였다. 요한계시록의 첫 절들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최초 언급의 법칙에 근거할 때 가장 중요한 진리를 표상한다. 곧 십사만 사천의 인침인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취된다. 그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어지고, 아들은 그것을 그의 천사에게 주며, 그 천사는 다시 그 기별을 한 인간 대표자에게 전한다. 처음 두 단계는 신성으로 표상된다. 그 두 단계는, 신성의 둘째 단계가 만물을 창조하신 신성을 나타낸다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그 다음 두 단계는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표상된다. 첫째 단계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둘째 나타남은 자기 종류대로 다시 창조할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였다. 그렇게 인성을 표상하는 넷째 단계는 그 기별을 받아 교회들에게 보내어, 교회들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읽고 듣게" 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 하신 것이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요한의 편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에게서, 또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곧 그의 아버지께 드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기를. 아멘.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1-11.